

2019 년 가을 학기
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

전체 주제:
그리스도인 생활

메시지 11

연합된 영 안에서 생활함

성경 말씀: 고전 6:17, 7:25, 40, 롬 8:4

I. 신약의 본질은 한 영으로 연합된 두 영, 즉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이다—고전 6:17, 롬 8:4.

- A.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연합된 영, 즉 사람의 영과 연합된 신성한 영이다. 하나님께서 하시거나 성취하려고 의도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이 초점과 연관된다—엡 3:9, 5, 1:17, 2:22, 4:23, 5:18, 6:18.
- B. 고린도 전서 6 장 17 절의 ‘합하는’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들이 주님을 믿어 유기적으로 주님과 연결된 것을 가리킨다—요 3:15-16, 15:4-5.
- C. ‘한 영’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영과 그 영이신 주님의 연합을 가리킨다.
 - 1. 주님과 한 영인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가리킨다—요 15:4-5.
 - 2. 우리와 그분은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생명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—요 14:19.
- D. 우리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한 영으로 연합된 ‘영’은 주님의 영과 우리의 영 둘 다 이다—롬 8:4, 고후 3:17, 고전 15:45 하, 6:17.
- E. 연합된 영은 하나님과 한 영인 영이고,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은 영이다—요일 5:11, 벧후 1:4.
 - 1. 신성한 영과 사람의 영은 우리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었다.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-사람의 생명, 즉 하나님이지만 사람이고 사람이지만 하나님인 생명을 살 수 있다—갈 2:20, 빌 1:19-21 상.
 - 2. 하나님-사람의 생활은 두 영의 생활, 즉 하나로 연결되고 연합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의 생활이다.
- F.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우리는 주 예수님께서 삼일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오늘 우리의 영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영과 연합되어 한 영이 되신 그 영이심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—고후 3:17, 고전 15:45 하, 6:17.
- G.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생활하는 것과 같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들은 모두 이 연합된 영 안에 있다—롬 1:9; 7:6.

II. 주님과 한 영임을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모든 것을 포함하신 분으로서 체험할 수 있다—고전 1:2, 9, 24, 30, 2:7, 10, 3:11, 5:7-8, 10:3-4, 11:3, 12:12, 15:20, 47, 45.

- A.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었음으로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고, 누리고, 살고, 모든 것으로서 취할 수 있다—고전 6:17.
- B.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일 때,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을 가질 수 있다—고전 1:9.
- C. 누구든지 주님과 한 영인 사람에게 공급은 다함이 없다.

III. 궁극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, 즉 우리가 연합된 영에 따라 행할 것을 요구한다—롬 8:4.

- A. 모든 것의 열쇠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시고 우리의 영과 한 영이 되신 놀라우신 영 안에서 찾아진다—고전 6:17.

- B. 영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온 존재에 스며들기까지 우리를 채우시고 적시도록 해 드리고, 그에 따라 우리를 통해 표현되시게 하는 것이다—엡 3:16-17, 골 3:4, 10-11.
- C. 주님께 가깝거나 그분의 임재 안에서 행하는 것이 그분과 한 영인 것과 동일하지 않다.
- D. 요한복음 15 장 4 절과 5 절에 있는 상호 거함은 주님과 한 영인 것의 실행이다.
- E. 우리가 영 안에서 살 때, 우리는 자동적으로 십자가를 지게 된다—마 16:24.
- F.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가 영 안에서 사는지 혹은 자아 안에서 사는지를 시험한다—롬 8:28.
- G. 사탄을 잠잠하게 하는 최고의 길은 영 안에서 사는 것이다—계 12:11.
 - 1. 사탄이 침범할 수 없는 오직 한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영이다.
 - 2. 우리가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가 없는 가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, 그보다 우리가 영 안에 있는가 육체 안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—갈 5:16-17.
 - 3. 우리가 연합된 영 안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지켜질 것이고 사탄은 우리에게 길이 없을 것이다—요일 5:4, 18-21.

IV. 연합된 영 안에 사는 것이 가장 높은 영성을 갖는 것이다—고전 6:17, 7:25, 40.

- A. 고린도 전서 7 장은 주님을 사랑하고, 이 땅에서의 주님의 권익을 관심하고, 주님을 위해 절대적이고 주님과 하나이며, 모든 방면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,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안배하신 환경에 만족하는 한 사람의 영을 전달한다—고전 7:20, 24.
 - 1. 바울은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하나였다. 그는 고린도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하나이고 어떤 일도 개시하지 않기를 원했다—고전 7:17-24.
 - 2. 바울이 절대적으로 주님과 하나였으므로 그의 지시나 대답들 가운데 그는 저절로 의식하지 않은 채 절대적인 영을 표현했다—고전 6:17.
 - a. 바울은 뛰어난 영, 즉 복종하고 만족하는 영을 가졌다.
 - b. 바울이 그와 같은 영을 가졌으므로 인해 그는 고린도 사람들도 그들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을 돕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할 수 있었다—고전 7:24.
- B. 바울이 주님과 하나였으므로, 그가 말할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말씀하셨다. 따라서 고린도 전서 7 장에서 우리는 신약에 있는 육체되심의 원칙을 본다—고전 7:10, 12, 25, 40.
 - 1. 육체되심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 시키심으로 사람을 그분과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다.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,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—요 15:4-5.
 - 2. 신약에서 주님은 그분의 사도들과 하나가 되시고, 그들은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과 함께 말한다. 따라서 그분의 말씀은 그들의 말이 된다.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이다—고전 2:12-13.
 - 3. 바울은 육체되심의 원칙 안에서 고린도 전서 7 장을 썼다.
 - a. 10 절에 있는 원칙은 갈라디아서 2 장 20 절에 있는 원칙, 즉 두 인격이 한 인격으로서 사는 육체되심의 원칙과 동일하다.
 - b. 바울이 주님과 하나였으므로, 그는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알았다.
 - c. 바울은 그가 자신의 의견을 말할 때 그도 하나님의 영을 갖고 있다고 생각 할 정도로 주님과 하나였다—고전 7:40.
 - d. 25 절과 40 절에서 우리는 가장 높은 영성, 즉 그의 의견이 주님의 생각을 표현할 정도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그분으로 침투된 한 사람의 영성을 본다.
 - e. 우리가 그 영으로 적셔질 때,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만, 그것은 또한 주님께 속한 것이다.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이기 때문이다—고전 6:17.